특집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Ⅱ*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1)

한국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년 8월 25일 창설된 본 상담소는 '법률구조' 라는 개념조차 없던 우리나라에 그 씨앗을 뿌려 법을 몰라 고통 받고 번민하는 이웃들을 돕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 지난 60여년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이러한 변화는 상담소를 방문한 내담자들의 특성과 상담사유 등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에 상담통계를 토대로 여성과 남성의 문제, 세대 간 문제가 어떤 양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6년 첫 해의 상담건수는 336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74,468건으로 222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60여년간 본 지부를 합해서는 총 3,585,801건의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해왔다.

연대별 특징

연대별 특징을 살펴보면,1950~60년대에는 다른 연대에 비해 사실혼 해소상담의 비율이 높았는데 혼인신고라는 법적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녀 모두 외도와 가족 간 갈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첩관계를 용인하고, 대가족 생활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소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를 실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1970년대에는 부부갈등 상담이 급증하였다. 또한, 다른 연대에 비해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6.25 및 베트남 전쟁, 서독 광부 파견 등으로 인해 십수년이 흘러도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돌아올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는 70년대에 비해, 이혼상담건수가 약 2.8배 증가하였다. 이혼사유를 보면, 다른 연대에 비해서 남성은 아내의 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아내에 대한 폭력이 선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내의 가출 증가는 남편의 폭력 증가와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199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급증하여 면접의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다른 연대에 비해 남편의 폭력을 주장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폭력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여성들이 90년대 들어서는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이혼을 통해서라도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더욱 증가하였고, 채권채무에 관한 상담도 90년대에 비해 3.5배 증가하였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제 문제는 가정 내 문제로 전이되어 결과적으로 2000년대에 이혼상담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는 기타사유가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외도, 가출, 폭행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유를 내세웠으나 이제는 성격차이, 애정상실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접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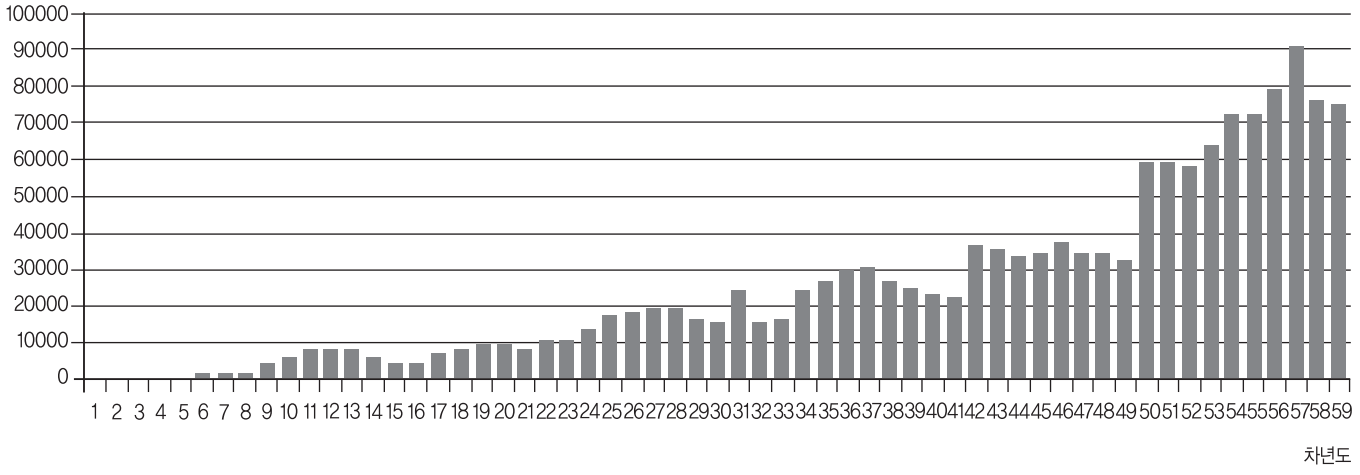
면접상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60여년간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한 내담자 467,964명의 상담내용을 보면, 가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는 이혼, 부부갈등, 남녀관계, 사실혼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도입으로 양육비 확보가 수월해짐에 따라 양육비 청구 방법에 관한 상담도 많아졌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상담통계 분석에 있어 호적관계 항목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친양자와 성변경 항목이 추가되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로 가족간 갈등을 겪는 경우도 증가하였는데 자녀는 형제들과 부

총상담건수



사건내용별 면접상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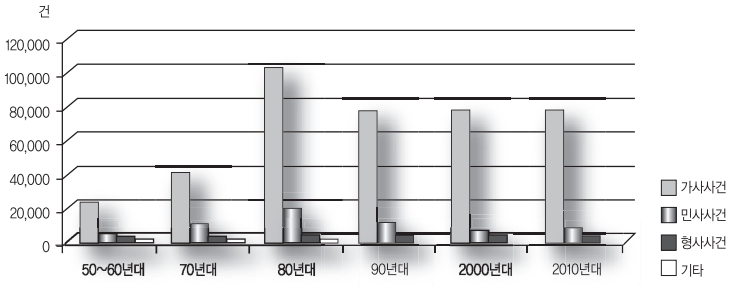
구분	연도 / 사건수 / 사건내용	50-60년대 총수(건)	50-60년대 백분율(%)	70년대 총수(건)	70년대 백분율(%)	80년대 총수(건)	80년대 백분율(%)	90년대 총수(건)	90년대 백분율(%)	2000년대 총수(건)	2000년대 백분율(%)	2010년대 총수(건)	2010년대 백분율(%)	합계 총수(건)	합계 백분율(%)
가사	파 혼	664	2.2	824	1.5	1,666	1.3	618	0.7	150	0.2	45	0.1	3,967	0.8
	사실혼해소	3,363	11.1	3,591	6.7	5,645	4.6	3,463	3.9	2,093	2.5	1,267	1.5	19,422	4.2
	이 혼	11,880	39.3	17,754	33.3	49,439	39.9	45,390	50.9	43,712	51.7	35,620	41.0	203,795	43.5
	남녀관계	2,768	9.2	5,068	9.5	8,358	6.8	3,146	3.5	1,298	1.5	410	0.5	21,048	4.5
	부부갈등	1,641	5.4	11,632	21.8	29,054	23.5	18,730	21.0	17,789	21.1	12,065	13.9	90,911	19.4
	친자관계 인지	970	3.2	793	1.5	2,590	2.1	1,312	1.5	234	0.3	541	0.6	10,023	2.1
	친자관계 친생부인									67	0.1	348	0.4		
	친자관계 친자부존재									782	0.9	2,386	2.7		
	양자관계(~55) 입양(56~)	34	0.1	134	0.3	416	0.3	416	0.5	220	0.3	682	0.8	1,902	0.4
	파양											197	0.2	197	0.0
	친양자									74	0.1	340	0.4	414	0.1
	부양관계	1,186	3.9	840	1.6	1,836	1.5	1,251	1.4	583	0.7	692	0.8	6,388	1.4
	유언 · 상속	595	2.0	559	1.0	2,595	2.1	2,267	2.5	2,012	2.4	5,223	6.0	13,251	2.8
	위자료 · 재산분할									1,712	2.0	2,528	2.9	4,240	0.9
	친권 · 양육권									1,550	1.8	2,134	2.5	3,684	0.8
	양육비									1,771	2.1	3,709	4.3	5,480	1.2
	면접교섭권									374	0.4	537	0.6	911	0.2
	혼인무효 · 취소									407	0.5	616	0.7	1,023	0.2
	이혼무효 · 취소									82	0.1	46	0.1	128	0.0
	호적관계(~51) 가족관계등록부(52~)									670	0.8	1,631	1.9	2,301	0.5
	성변경									76	0.1	659	0.8	735	0.2
	개명									6	0.0	416	0.5	422	0.1
	미성년후견											341	0.4	341	0.1
	성년후견											861	1.0	861	0.2
	가사절차									53	0.1	1,654	1.9	1,707	0.4
	기타							231	0.3	2,203	2.6	3,075	3.5	5,509	1.2
	계	23,101	76.4	41,195	77.2	101,599	82.1	76,824	86.1	77,918	92.3	78,023	89.9	398,660	85.2
민사	주택관계 임대차							394	0.4	591	0.7	252	0.3	1,804	0.4
	주택관계 부동산									377	0.4	190	0.2		
	채권채무	417	1.4	419	0.8	1,991	1.6	756	0.8	2,377	2.8	680	0.8	6,640	1.4
	파산									872	1.0	5,998	6.9	6,870	1.5
	개인회생											282	0.3	282	0.1
	민사절차	1,867	6.2	3,649	6.8	5,577	4.5	3,337	3.7	236	0.3	78	0.1	14,744	3.2
	민사기타	1,815	6.0	6,279	11.8	11,260	9.1	6,299	7.1	871	1.0	656	0.8	27,180	5.8
	계	4,099	13.6	10,347	19.4	18,828	15.2	10,786	12.1	5,324	6.2	8,136	9.4	57,520	12.4
형사	간 통	1,430	4.7	548	1.0	1,504	1.2	649	0.7	226	0.3	74	0.1	4,431	0.9
	혼인빙자간음	557	1.8	558	1.0	962	0.8	230	0.3	155	0.2	4	0.0	2,466	0.5
	성폭행	104	0.4	66	0.1	111	0.1	97	0.1	148	0.2	76	0.1	602	0.1
	성매매									–	–	2	0.0	2	0.0
	폭행 · 상해 · 사기	229	0.8	139	0.3	254	0.2	242	0.3					864	0.2
	형사절차	67	0.2	18	0.0	15	0.0	58	0.1	16	0.0	92	0.1	266	0.1
	형사기타	329	1.1	266	0.5	335	0.3	350	0.4	702	0.8	412	0.5	2,394	0.5
	계	2,716	9.0	1,595	3.0	3,181	2.6	1,626	1.8	1,247	1.5	660	0.7	11,025	2.2
기타		305	1.0	261	0.5	193	0.1	–	–					759	0.2
합계		30,221	100	53,398	100	123,801	100	89,236	100	84,489	100	86,819	100	467,964	100

양의무를 나눠 질 수 있는지, 노부모는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해 왔다.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가족의 후견인 선임에 대해 문의해 왔다. 피후견인이 될 사람들은 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장래에 재산을 받을 예정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다른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온 경우도 있었다.

유언 · 상속에 관한 상담 건수도 증가하였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알고자 하였고,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과 유류분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또한 사후에 남겨질 배우자를 위해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유언방식이나 기관에 전액을 기부하는 방법 등을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자가 빚을 남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면접 – 연대별 · 사건내용별



남녀별 면접상담 분석

연 대	총수(건)	남성(명)	백분율(%)	여성(명)	백분율(%)
50-60년대	30,221	7,248	24.0	22,973	76.0
70년대	53,398	13,493	25.3	39,905	74.7
80년대	123,801	30,289	24.5	93,512	75.5
90년대	89,236	17,301	19.4	71,935	80.6
2000년대	84,489	20,117	23.8	64,372	76.2
2010년대	86,819	29,916	34.5	56,903	65.5
합 계	467,964	118,364	25.3	349,600	74.7

민사사건 중 파산에 관한 상담도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90년대 말 시작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곤란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면접상담을 한 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는데 남녀 비율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남성의 사회와 가정 내 위상이 약해진 점, 자존심이나 자격지심으로 남에게 문제를 내놓기 꺼려했던 과거의 아버지, 남편들과는 달리 자기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성들의 의식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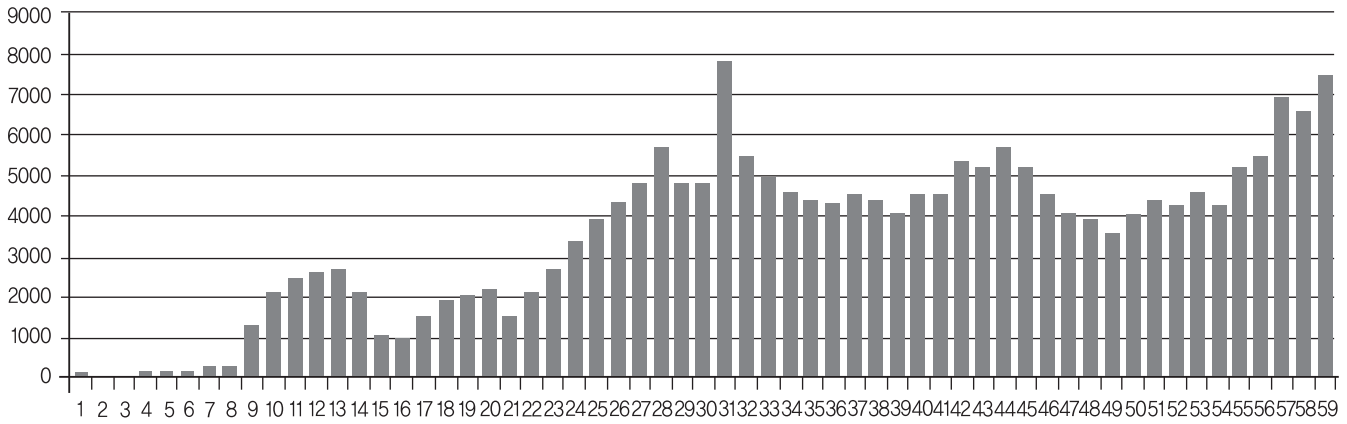
이혼상담

총 이혼상담건수는 203,795건이었다. 이혼상담은 80년대까지는 면접의 약 30~40%를 차지하였으나 90년부터는 과반수를 넘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허용적으로 바뀐 점과 남편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가정 내 지위 변화 등으로 자연스레 야기된 결과라 보인다. 또한 90년 가족법 개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도입하고, 자녀양육을 부모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대등한 권리를 갖도록 한 점 역시 이혼 상담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4.4배 많았는데 이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 할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40대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50대와 60대 이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결혼초부터 갈등이 있어도 이혼을 보류하였다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50대의 이혼상담 증가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60대의 경우도 자녀문제로 이혼을 보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더 이상은 참고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혼상담건수



남녀 모두 고졸, 대졸, 중졸 순이었고 남성은 회사원, 무직, 자영업, 여성은 주부, 무직, 단순노무 순이었다. 혼인형태는 초혼이 가장 많았으나 재혼가정의 재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혼인 초기에 파탄에 이르는 비율이 1/4정도였고, 21년 이상, 31년 이상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50대, 60대 이상 증가 경향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60년간 남녀 모두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로 인한 이혼상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성은 아내의 가출, 외도, 여성은 남편의 폭력, 외도가 많았다.

남성의 경우 아내 가출은 기타사유 다음으로 항상 많았다. 남성은 아내가 외도나 경제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가출 전에 남편의 폭력이 선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실제로 여성의 이혼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기타 사유인 6호사유를 제외하고 단일 사유로는 남편의 폭력이 항상 가장 많은데, 대부분 모든 이혼사유와 병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의도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이해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여성은 배우자의 극심한 폭행이나 학대가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반해, 남성은 자신에 대한 무관심,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 자신을 가장으로서 잘 대우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출을 호소하는 이들이 2010년대 들어서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남편이 외도하면서 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열악해지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는 실직이나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간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고자 해도 남편이 있으면 어려워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

다음으로 이혼사유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기타 사유는 그 내용이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많이 제시한 사유는 성격차이였고, 다음은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장기별거 등이었다.

성격차이는 부부 불화의 총괄적인 개념으로 다른 항목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남녀의 인식이 달라 남성은 아내가 남편이나 시집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성격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남편이 자기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아내나 처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성격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성의 경우 경제문제와 관련된 이혼상담의 증가가 두드

러졌다. 이는 생활비, 무리한 투자, 빚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아내는 맞벌이로 경제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한 반면, 남성은 실직 등으로 점점 더 설 자리가 없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감당할 수 없어 가정해체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담들도 적지 않았다.

배우자의 이혼강요도 비중있는 사유로 꼽혔다. 아내는 오랜 시간 참다가 이혼을 요구했어도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조차 납득하지 못해 이미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혼요구가 반복될 경우 결국에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상담을 해왔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 상담을 해온 이들이 증가하였다. 아내가 우울증, 의부증, 성격파탄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거부해 힘들다고 호소해왔다. 주벽 역시 증가 양상을 보였는데 아내들은 대부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남편과 자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알콜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아내의 불성실한 생활을 문제 삼은 이들도 증가하였다. 가사일과 자녀 양육 등을 등한시하면서 외부 활동과 여가생활에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할 경우 외박과 가출까지도 일삼아 혼인 생활에 직접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경제문제가 증가했는데 맞벌이로 수입은 더 증가했어도 소비가 늘어나 지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젊은 층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능력을 문제삼거나 대놓고 처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결혼생활이 어렵다며 상담을 해왔다.

장기별거도 증가했는데 갈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별거를 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협의하지 않고 일방의 가출로 별거가 야기된 경우가 많았다. 별거초기에는 자녀문제 등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수년씩 장기화되면 연락이 끊겨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자녀양육갈등도 늘어났다. 자녀수는 줄었으나 맞벌이 증가로 인해 양육자지정, 양육비용, 양육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서 갈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남편이 실질적인 양육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양육비용이나 방식 등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호소해왔다.

시가와의 갈등도 꾸준히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학대가 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며느리의 시부모에 대한 무시, 냉대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에는 사위에 대한 처가의 태도도 무조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으나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는 딸과의 관계가 원만한지에 따라 그 태도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뀌었다.

의처증 역시 꾸준히 나타났다. 사소한 단서만 가지고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이미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 경우가 많았다. 의처증에는 대부분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도 수반되었고 치료를 요하는 병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3백만 건이 넘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상담소는 60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 구현을 목표로 한 법률구조,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상 남녀 · 부부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족법 개정에 매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과 권익신장을 이루었으며 가정 내에서 남녀평등, 부부평등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된 노력과 실천으로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진영 상담위원